

-(으)ㄴ/는 김에

~하는 김에 — 어차피 하는 김에 함께

이미 하고 있던 일에 다른 일을 하나 더 엮습니다. 앞의 동작이 그곳에 간 진짜 이유이고, 뒤의 동작은 기회가 생겨서 덧붙인 것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아직 할 동작	-는 김에	가다 → 가는 김에
이미 한 동작	-(으)ㄴ 김에	오다 → 온 김에
ㄹ로 끝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드는 김에
부탁할 때	-는 김에 + 부탁	나가는 김에 부쳐 주세요
형용사	불가능	좋은 김에 (×)
대응한 동작에는	-고, -(으)면서	둘 다 계획했다면 -고

■ 언제 쓰나요

앞의 동작이 아직 앞으로 할 일이거나 진행 중이면 -는 김에를, 이미 끝났으면 -(으)ㄴ 김에를 씁니다: 시내에 가는 김에(시내에 나가는 김에)와 여기까지 온 김에(여기까지 온 김에)를 비교해 보십시오. ㄹ 어간은 ㄹ이 탈락합니다.

이 표현은 동작 동사에만 붙습니다. 엮을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, 형용사로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.

형태보다 논리가 중요합니다. 두 동작의 비중이 같을 수 없습니다. 앞의 것이 실제 목적이고, 뒤의 것은 기회가 생겨서 덧붙인 것입니다. 처음부터 둘 다 하려고 했다면 이 구문은 맞지 않습니다.

부탁을 공손하게 할 때도 씁니다. 따로 수고를 끼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: 나가는 김에 이것 좀 부쳐 주세요.

■ 예문

- 1 시내에 가는 김에 은행에도 들르게요.
- 2 여기까지 온 김에 커피 한잔 하고 가요.
- 3 나가는 김에 이것 좀 부쳐 주시겠어요?
- 4 저녁을 만드는 김에 내일 것도 준비했어요.
- 5 청소하는 김에 창문도 닦았어요.
- 6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를 좀 더 해 볼까요?

■ 비교

-(으)면서

-(으)면서는 두 동작이 같은 비중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. -는 김에는 뒤의 동작을 앞의 동작에 딸린 덤으로 둡니다.

청소하면서 음악을 들었어요. (두 가지를 동시에) / 청소하는 김에 창문도 닦았어요. (하는 김에 덧붙여)

-는 동안

-는 동안은 다른 일이 일어난 시간 구간을 나타내며, 다른 사람이 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. -는 김에는 스스로 만든 기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.

제가 청소하는 동안 동생은 잤어요. (그 사이에) / 청소하는 김에 정리도 했어요. (하는 김에)

-고

두 동작이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면 단순한 연속이므로 -고를 씁니다. 김에는 뒤의 동작이 계획에 없던 것이어야 합니다.

은행에 가고 시장에도 갔어요. (둘 다 계획) / 은행에 간 김에 시장에도 들렀어요. (은행이 목적, 시장은 덤)

■ 주의

✗ 날씨가 좋은 김에 산책했어요.

○ 날씨가 좋아서 산책했어요.

김에에는 엮을 동작이 필요합니다. 형용사는 계기가 아니라 상태를 나타냅니다.

✗ 저녁을 만드는 김에 내일 것도 했어요.

○ 저녁을 만드는 김에 내일 것도 했어요.

ㄹ로 끝나는 어간은 관형형 체계 전반에서와 같이 -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
✗ 은행하고 시장에 가는 김에 둘 다 갔어요.

○ 은행에 간 김에 시장에도 들렀어요.

뒤의 동작은 계획에 없던 덤이어야 합니다. 두 가지 모두 목적이었다면 -고를 씁니다.